

상세자금순환표의 작성 의의 및 개발 계획

최유진*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는 금융상품별로 경제부문간 채권-채무 관계(creditor-debtor relationships), 즉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을 보여주는 통계로서 기존의 자금순환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래 상대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세자금순환표를 통해 경제부문간 자금흐름의 상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경제부문간 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금융시스템 내 위험발생 영역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험 식별과 파급 경로 파악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통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상세자금순환표 작성 논의가 활발해졌다.

한국은행은 OECD가 제안한 국제 표준안과 기존 자금순환표의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세자금순환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에 따라 기초자료를 확보한 상품군을 중심으로 2017년 상세자금순환표를 시험편제 하였다.

시험편제 결과 금융기관, 정부, 비금융기업, 가계 및 비영리단체 등 각 경제부문이 어느 경제부문으로부터 어떤 금융상품으로 얼마의 규모로 익스포져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등 기존 자금순환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계로서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충분한 시험편제를 통해 통계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조사표 개선 등 기초자료 확충 과정을 거쳐 공식 통계로서 정합성이 검증된 상품군부터 순차적으로 상세자금순환표의 공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I. 머리말

II. 상세자금순환표의 작성 의의 및 국제 표준안

1. 개념 및 작성 의의
2. OECD의 상세자금순환표 편제 표준안

III. 상세자금순환표 개발 계획

1. 추진 경과 및 진행 상황
2. 2017년 상세자금순환표 시험편제 주요 결과

IV. 맺음말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 과장(e-mail: yjch1021@bok.or.kr, phone: 02-759-4337)

I. 머리말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는 금융상품별로 경제부문간 채권-채무관계(creditor-debtor relationships), 즉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을 보여주는 통계로서 자금순환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래 상대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자금순환표를 통해 각 경제부문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규모와 구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경제부문간 상호 거래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통계이용자들은 자금순환표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어느 경제부문에서 발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상세자금순환표는 각 경제부문이 보유한 금융상품의 거래 상대부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금융부문이 어느 경제부문에서 발행한 채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부문간 자금흐름의 상세 정보를 나타내는 상세자금순환표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금융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수준을 변경할 경우 각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자금운용 및 자금조달 경로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상세자금순환표를 이용하여 경제부문간 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금융시스템 내 위험발생 영역을 모니터링하거나 잠재적 위기의 확산경로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험 식별과 파급 경로 파악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통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상세자금순환표 작성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OECD는 G20 DGI(Data Gaps Initiative) 추진 과제의 하나로 상세자금순환표를 채택하고¹⁾ 2018년 2월에 상세자금순환표 편제를 위한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행은 2011년부터 상세자금순환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작성 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OECD가 제안한 국제 표준안과 기존 자금순환표의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세자금순환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따라 기

1) G20 DGI는 2009년 G-20 회의(2009.4월, 런던)에서 시작된 국제 통계 개발·개선 사업으로 한국은행은 국제기준 마련과 국내 통계 개발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총 19개 과제에 대해 2021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상세자금순환표는 8번째 과제인 제도부문별통계(Sectoral Accounts)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다. DGI 과제는 세부내용별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선 목표수준(target)의 과제와 의무는 아니지만 이행을 권고하는 상위 권고수준(more advanced ambitions)의 과제로 구분되는데, 상세자금순환표는 상위 권고수준 과제에 해당한다.

초자료를 확보한 상품군을 중심으로 2017년 상세자금순환표를 시험편제 하였다.

이하에서는 상세자금순환표의 개념 및 OECD가 제시한 국제 표준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상세자금순환표 개발 진행상황 및 시험편제의 주요 결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하였다.

II . 상세자금순환표의 작성 의의 및 국제 표준안

1. 개념 및 작성 의의

상세자금순환표는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상환의무를 지닌 주체를 채무자(debtor)로 보고, 동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여 향후 상환 받을 권리를 지닌 주체를 채권자(creditor)로 하여 각 금융상품별로 채권-채무 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기존의 자금순환표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상품별 거래 상대방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상품을 매개로 한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상세자금순환표는 금융기관, 정부, 비금융기업, 가계 및 비영리단체 등 각 경제부문이 어느 경제부문으로부터 어떤 금융상품으로 얼마의 규모로 익스포제가 있는지를 행렬형태로 정리한 통계표이다.

기본 형태는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상품에 대해 열에는 채권자가 부문별로 나타나고, 행에는 채무자가 부문별로 나타나도록 구성된다.

<그림 1> 상세자금순환표의 기본 형태

금융상품(instruments)			채권자					계	
			국내						국외
			금융	정부	기업	가계	소계		
채무자	국내	금융							
		정부							
		기업							
		가계							
		소계							
	국외								
	계								

주 : 1) 국외는 국내 경제부문과 거래하는 비거주자를 의미하며, 국내 경제와 관련이 없는 비거주자간 거래(음영)는 제외

<그림 2>는 자금순환표와 상세자금순환표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자금순환표는 각 경제부문의 금융상품별 자산·부채 현황을 나타내므로, ‘채권’ 상품의 예를 보면 금융부문의 채권 자산은 60조원이고 기업부문의 채권 부채는 50조원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채권’ 상품에 대해 작성한 상세자금순환표를 통해 보면, 금융부문이 보유한 채권 자산 60조원의 발행자는 금융, 정부, 기업부문이며 각각 10, 20, 30조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업부문의 채권 부채 50조원은 금융, 정부, 기업, 가계부문이 각각 30, 5, 10, 5조원씩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세자금순환표는 금융상품별로 작성되어 열은 해당 부문이 보유한 자산의 채무자(발행자) 구성을 나타내고, 행은 해당 부문의 부채를 보유한 채권자의 구성을 보여 준다.

<그림 2> 자금순환표와 상세자금순환표 비교
(자금순환표) (단위 : 조원)

		합 계		국내								국외	
				금융		정부		기업		가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금융 상품 유형	금과 SDR												
	현금 및 예금	100	100	7	95	5	5	15		70		3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채권	120	120	60	30	30	40	10	50	10	-	10	-
	대출금												
	∴												

(상세자금순환표) (단위 : 조원)

채 권		채권자						합 계
		금융	정부	기업	가계	국외		
채무자	금 융	10	15		5		30	
	정 부	20	10			10	40	
	기 업	30	5	10	5		50	
	가 계							
	국 외							
	합 계	60	30	10	10	10	120	

상세자금순환표는 경제부문간 자금흐름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금융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먼저 통화정책의 변

화가 각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자금운용 및 자금조달 경로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의 변화에 따른 자금조달자(debtor)와 채권자(creditor)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신용공급이 제한될 경우의 파급효과를 자금조달구조와 연계하여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세자금순환표를 이용한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해 금융시스템 내 위험발생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의 잠재적 확산경로(propagation channel) 파악이 용이해진다. 예를 들어 각 경제부문의 비은행금융중개기관(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²⁾과의 익스포져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하여 금융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위험의 잠재적 확산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세자금순환표는 자금순환표의 정합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상세자금순환표의 채권-채무관계 작성 과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는 자금순환표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 OECD의 상세자금순환표 편제 표준안

OECD는 2018년 2월에 발표한 상세자금순환표 편제 표준안에서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및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s)의 세분화(granularity) 수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금융상품의 분류수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국제기준인 「2008 SNA」³⁾의 금융상품 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중요도에 따라 세분화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금융상품은 <표 1>과 같이 금과 SDR, 현금 및 예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지분, 보험 및 연금 준비금, 파생금융상품 및 스톡옵션, 기타금융자산 및 부채 등 총 8개 대분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금 및 예금’은 다시 현금과 예금으로 구분하고, ‘채권 및 대출금’은 약정만기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를 구분하고 있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지분’은 지분증권과 투자펀드 지분으로 세분하였고, ‘지분증권’은 다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세분화하였다.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은 비생명보험준비금, 생명보험준비금, 연금수령권, 연금청구권, 비연금혜택수령권, 표준보증기구 상환요청 준비금으로 세분화하였다. ‘파생금융상품 및 스톡옵션’은 파생금융상품, 스톡옵션으로 세분화하였다.⁴⁾

2)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시스템을 지칭한다.

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 국외거래계정, 대차대조표계정 등 국민계정의 작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편제 지침서이다. UN, OECD, IMF 등 국제기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세계화 등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2008 SNA」를 개정·발표하였다.

4) 이를 현재 우리나라 자금순환표의 분류와 비교해보면, 대체로 자금순환표의 공표수준은 OECD의 표준안과

〈표 1〉

OECD의 금융상품 분류 수준

1. 금과 SDR	5.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지분
2. 현금 및 예금 현금 / 예금	지분증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투자펀드 지분
3. 채권 단기채권 / 장기채권	6. 보험 및 연금 준비금 비생명보험준비금 / 생명보험준비금 / 연금수령권 / 연금청구권 / 비연금혜택수령권 / 표준보증기구 상환요청 준비금
4. 대출금 단기대출금 / 장기대출금	7. 파생금융상품 및 스톡옵션 파생금융상품 / 스톡옵션
	8. 기타금융자산 및 부채 상거래신용 / 기타

거래 상대방분 분류는 크게 국내, 국외로 구분하고 국내를 금융기관, 정부, 비금융기업, 가계 및 비영리단체 등 4대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⁵⁾

부합한다. 다만, 자금순환표의 경우 기초자료의 제약 등으로 지분증권을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의 하위분류를 세분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규모가 크지 않은 스톡옵션은 별도로 추계하지 않고 있다.

5) OECD는 당초 금융상품별로 거래 상대방분 분류수준을 다르게 적용(level 1, level 2, level 3로 구분)하는 분류안을 제시하였으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논의 과정에서 자료수집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18년 2월에 제시한 최종 표준안에서는 거래 상대방분 분류를 level 2로 간소화하였다.

III. 상세자금순환표 개발 계획

1. 추진 경과 및 진행 상황

한국은행은 새롭게 개정된 「2008 SN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세자금순환표 개발을 추진하였다.⁶⁾ 먼저 2011~2013년중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는 개발 계획 수립과 사전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8 SNA」에서 권고하는 상세자금순환표의 작성방안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하고 금융상품과 경제부문을 도입하기 위한 편제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자금순환표 조사표의 금융상품 분류를 더 세분화하고, 거래상대방을 상세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008 SNA」이행을 위한 자금순환표 개편을 통해 <표 2>에서와 같이 금융상품 및 제도부문의 분류 수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편제 과정에서 작성되는 편제종합표⁷⁾를 더욱 상세하게 작성하여 자금순환표의 정도를 제고함은 물론 상세자금순환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표 2> 자금순환표 개편 전·후 조사 및 편제수준 비교

	개편 전		개편 후	
	(공표수준)	(편제수준)	(공표수준)	(편제수준)
1. 분기별 조사				
(항목수)	2,998/기관당		7,219/기관당	
(조사기관수)	800개 내외		1,500개 내외	
2. 분기별 편제				
(경제부문수)	26	43	30	72
(금융상품수)	40	69	57	561

2014~2018년중 진행된 2단계 사업은 「2008 SNA」 기준의 자금순환표 개편과 소급작업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상세자금순환표의 시험편제 방안을 수립하였다. 필요한 기초자료 현황과 수집 가능성을 점검하여 상세자금순환표 작성이 가능한 우선편제대상 상품

6) 「2008 SNA」는 상세자금순환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고, 각국의 기초자료 여건에 따라 예시된 표의 양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7) 분기별 자금순환표 편제과정에서 작성되는 매우 상세한 분류수준의 자금순환통계표를 지칭한다. 「2008 SNA」 권고사항에 따라 금융상품별로 거래 상대부문을 알 수 있는 상세한 분류방식(상품·부분분류 : 561×72 분류)으로 작성하고 있다.

군으로 금과 SDR, 현금 및 예금, 채권, 대출금, 보험 및 연금 준비금 등 5개 상품을 선정하였다. OECD의 편제표준안에 따라 우선편제대상 상품군에 대하여 2017년 상세자금순환표를 시험편제하였다.

시험편제에 적용한 거래 상대방분 분류는 하위 분류에 대한 기초자료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금융부문의 리스크 점검 및 상호연계성 파악 등 통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의 표준안에서 제안하는 5대 분류보다 더욱 세분화하여 16부분으로 작성하였다.

한편, 현재 기초자료가 부족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지분, 파생금융상품 및 스톡옵션, 기타금융자산 및 부채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기초자료 보완 및 추가자료 수집 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표 3〉 상세자금순환표의 거래 상대방분 분류

OECD 분류		시험편제 분류
국내	금융기관	통화금융기관
		중앙은행
		예취기관
		은행
		비은행 ¹⁾
		MMF
		Non-MMF
		기타금융기관
		금융중개기관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		
금융보조기관 ²⁾		
전속금융 및 대부업 ³⁾		
보험 및 연금		
보험기관		
연금기금		
정부	정부	
비금융기업	비금융기업	
가계 및 비영리단체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비거주자)	국외(비거주자)	

주 : 1) 신탁, 서민금융기관(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기타예금취급기관(우체국예금, 수출입은행), 종금사 등

2) 자금중개회사,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서민금융보조기관(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의 중앙회) 등

3) 지주회사, SPC, 대부업체 등

2. 2017년 상세자금순환표 시험편제 주요 결과

2017년 상세자금순환표의 시험편제는 우선편제대상 상품군 5개에 대하여 2018년 4월 공표한 2017년 잠정 자금순환표를 기준⁸⁾으로 작성하였다. 이번 시험편제 결과는 현재 가용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된 결과이며, 기초자료 보완 및 추가자료 수집 등을 통해 통계의 정도가 제고될 여지가 있다. 향후 여러 번의 시험편제를 통해 시계열의 안정성 및 통계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본고에 수록된 내용을 통계자료로 인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세자금순환표 시험편제 대상 5개 상품군이 2017년말 기준 총 금융자산 및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1%이며, 현금 및 예금(19.2%), 대출금(19.0%), 채권(15.6%), 보험 및 연금 준비금(7.3%), 금과 SDR(자산기준 0.1%, 부채기준 0.0%) 순이다.

〈표 4〉

금융자산 잔액 및 비중(2017년말^P)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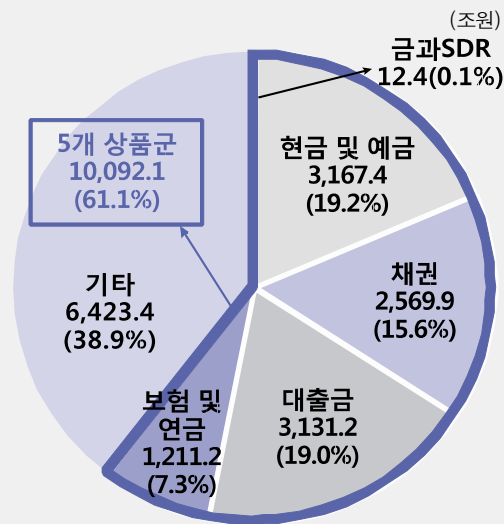
상품군	잔액	비중
■ 금과 SDR	12.4	0.1
■ 현금 및 예금	3,167.4	19.2
(현금)	(107.8)	(0.7)
(예금)	(3,059.6)	(18.5)
■ 채권 ¹⁾	2,569.9	15.6
■ 대출금 ²⁾	3,131.2	19.0
■ 보험 및 연금 준비금	1,211.2	7.3
5개 상품군	10,092.1	61.1
그 외 기타상품	6,423.4	38.9
전체	16,515.5	100.0

주 : 1) 파생결합증권 포함
2) 정부용자 포함

8) 2018년 4월 발표된 2017년 잠정 자금순환표 기준이며, 잠정치 발표 이후 확보된 기초자료 등을 반영한 2017년 확정 자금순환표는 2019년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림 3〉

금융자산 잔액 구성(2017년말^P)



이하에서는 예금 상품에 대한 상세자금순환표 시험편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금은 중앙은행을 제외한 모든 경제부문이 채권자이고,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정부가 채무자이다. <표 5>는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큰 기관들을 중심으로 요약한 채권-채무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금의 주요 경제부문간 상호연계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017년말 현재 총 3,059.6조원의 예금을 자산기준으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504.7조원(49.2%), 기업이 555.3조원(18.2%), 비은행이 277.8조원(9.1%)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를 상세자금순환표를 통해 거래상대별로 살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비은행에 692.7조원(46.0%)을 예치하여, 은행에 예치한 666.9조원(44.3%)을 소폭 상회한다. 기업은 은행에 411.6조원(74.1%), 비은행에 131.0조원(23.6%) 예치하여 은행 예금 규모가 비은행보다 3배 이상 크다. 그리고 비은행의 예금자산은 금융보조기관에 147.6조원(53.1%), 은행에 69.0조원(24.8%)을 예치하고 있고, 비은행 기관간 예금은 27.5조원(9.9%)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예금을 부채기준(행방향)으로 보면 은행의 예금부채 1,522.2조원의 43.8%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예금(666.9조원)이고, 27.0%는 기업 예금(411.6조원)이다. 반면 비은행의 경우 예금부채 총액(943.4조원)의 73.4%가 가계 및 비영리단체(692.7조원)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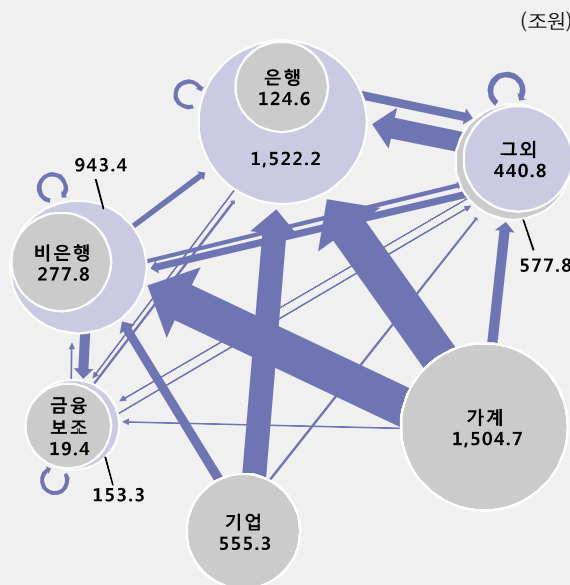
〈표 5〉 예금의 상세자금순환표(2017년말^P)

(조원, %)

채권 채무	은행	비은행	금융 보조	기업	가계	그 외	합계 ¹⁾
은행	8.1	69.0	13.9	411.6	666.9	352.7	1,522.2 (49.7)
비은행	0.0	27.5	1.7	131.0	692.7	90.5	943.4 (30.8)
금융 보조	0.2	147.6	0.4	-	1.0	4.1	153.3 (5.0)
기업	-	-	-	-	-	-	-
가계	-	-	-	-	-	-	-
그 외	116.3	33.7	3.4	12.8	144.2	130.4	440.8 ³⁾ (14.4)
합계 ¹⁾	124.6 (4.1)	277.8 (9.1)	19.4 (0.6)	555.3 (18.2)	1,504.7 (49.2)	577.8 ²⁾ (18.9)	3,059.6 (100.0)

주 : 1) ()내는 전체규모에서 해당 부문의 자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
 2) 정부 203.8조원, 금융중개기관 109.2조원 등
 3) 금융중개기관 221.5조원, 중앙은행 133.0조원 등

〈그림 4〉 예금의 경제부문간 상호연계구조(2017년말^P)



주 : 1) ●는 부채 기준, ●는 자산 기준
 2) 화살표는 채권자에서 채무자로의 자금 이동을 나타내며,
 화살표 굵기는 금액에 비례

IV. 맺음말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금의 상세자금순환표를 통해 각 경제부문이 어느 경제부문으로부터 예금을 얼마나 예수하고, 어느 경제부문으로 얼마나 예치하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상세자금순환표를 이용하면 기존의 자금순환표에서는 알 수 없었던 거래상대방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별로 경제부문간 채권-채무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경제부문간 상호연계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2017년 한 해에 대해서만 시험편제 되어 경제부문간 금융상품별 채권-채무관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지만 향후 시계열 데이터가 축적되면 경제부문간 채권-채무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여 통화정책 효과 및 경로 분석과 금융안정성 측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연말기준 상세자금순환표의 시험편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거래상대방 정보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지분, 파생금융상품 및 스톡옵션, 기타금융자산 및 부채 등 기초자료 미확보 상품군에 대해서는 2019~2020년 중 기초자료 보완 및 작성 방안을 검토하여 2021년 이후 시험편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 충분한 시험편제를 통해 통계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조사표 개선 등 기초자료 확충 과정을 거쳐 공식 통계로서 정합성이 검증된 상품군부터 순차적으로 상세자금순환표의 공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Schubert. A.(2015), “Statistics on a who-to-whom basis”, Third IMF Statistics Forum.
- Banks. A.(2016), “The UK flow of funds project: identifying sectoral interconnectedness in the UK economy”, National Accounts article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IMF and FSB(2016), “Second Phase of the G-20 Data Gaps Initiative(DGI-2) First Progressive Report”, IMF and FSB Secretariat.
- Nolan. L.(2016a), “Economic Statistics Transformation Programme: Developing the enhanced financial accounts”, National Accounts article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Nolan. L.(2016b), “Economic Statistics Transformation Programme: Flow of funds – the international context”, National Accounts article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OECD(2017), “Proposal for a data collection on financial accounts and balance sheets on a from-whom-to-whom basis”, OECD manuscript.
- OECD(2017), “Survey Outcome of the G-20 Thematic Workshop on Institutional Sector Accounts,” OECD manuscript.

